

SERMON 3 APRIL 2016

Act(사도행전) 5:27-39, Luke(누가 복음) 24:13-35

어릴 적 저의 성찬식 추억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침울한 남성들은 어떤 종류의 특별한 능력을 분명히 부여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간위로 응시할 수 있는 갤러리에서, 검은 가운을 입은 목사님께서 중간에 앉으시고 성찬식 탁자 뒤에 앉으신 이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그분들은 작은 네모난 빵을 은쟁반에 담아서 복도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컵쟁반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조용히 이루어 집니다, 물론 저도 몇 년 후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라” 라는 찬양과 함께 성찬식 요소들이 수행 되는 것에 연관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실때 항상 흥분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능력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저는 성찬식에 관한 다른 추억도 있습니다: 좁고 작은 휴게실 방에 우리는 모여 앉아서, 콜럼반 집 (Columban houses)에, 작은 두 공동체 멤버들이 두 개의 분리된 계단이 있고 에딘버러 슬럼가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우리는 참여했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정하게 환영해주었으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면에서 살기에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그림 같은 집은 아닙니다, 아파트 건물들은 아름답지 않았고 거리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된 소파에 꼭 붙어 모여서 바닥 주위에 둘러 앉아 집에서 만든 빵과 포도주를 전달하며 먹었습니다. 근엄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게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찬식 기억들이 있을 것 입니다. 이 성찬식은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서로서로가 함께함을 축하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들 사이에 분열의 원천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도 또한 긴 탁자에 중앙에 교회 복도에 제가 잘 아시는 분들과 앉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가톨릭이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는 손과 손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교회에서 말한 것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에, 많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빵과 와플을, 포도주와 포도 주스를 받기 위해서 올 것 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 해, 세기, 천년 후에, 우리는 육체적인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우리주위에 임재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억합니다.

부활 주일날 어떻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을 기억 하는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 빈 무덤과 부활의 빛을 그들의 세상에 형성하는 어떤 종류의 감각을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읽기 표에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알아 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따라가며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 표에서 빠져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나의 상상력을
동원시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입니다.

어쨌던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바를 전에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남아있는 11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 예수님 주위에 더 넓은 범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까운 제자들과 시골 마을을 여행
함으로, 제자들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이야기에 집중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이들 외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나귀의 주인은 그분을 아셨을 까요?
아마도 최후의 만찬,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모인 그 주인의 집도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전통신앙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 당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단지 작은 절친한 제자들만 그 주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 그를 따르는 더 넓은 공동체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여기 두 지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먼 길을 걸을 때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가 부활하신 예수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흥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처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쯤 우리는 배웁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또한 만납니다, 주일 부활 아침 정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설명 없이 간단하게 응급합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두 명의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없는지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린 다음 그들이 본 그 낯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 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다 더 눈먼 것은 없다.”

어떤 경우든 이 이상한자는 이 주말의 사건은 그들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에게 빵을 찢을 것처럼 그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 입니다. 그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거의 못 믿겠다는 생각이 모두다 맞아 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빵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빵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말입니다.

낯선 사람, 나그네, 주인.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은 기억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 순식간에 그들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버스정류장에서 하는 대화를 통해서, 슈퍼마켓에 줄을 기다리다 하는 대화, 등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마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아마 어떤 분이 그냥 길에서 지나 가실 때, 그리고 그들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듯한 연결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잊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런 만남은 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특별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본 사실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무덤에 함께한 여성들, 여기 두 사람은 거기에 이미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아마 그들의 슬픔과 스트레스에 의해 숨겨졌습니다. 빵을 찢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 해야 합니다.

여기 지친 두 사람은 밤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한 아주 강한 필요와 갑자기 활기로 가득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산산이 부서진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에 뉴스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오래된 믿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빵을 찢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으셨고 묻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새로운 이해를 돕습니다.

빵을 찢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의 삶의 사역과 그의 고통, 죽음, 자기 희생적인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며 그것은 항상 부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이해에서, 빵을 찢는 것은 닫힌 의식으로 몇 명의 소속된 그룹만이 축제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낯선 사람 에게, 손님에게 그리고 주인으로서 임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전통은 모든 믿음의 중심이지 최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억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두 명의 낯선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에게 아이를 가질 것 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귀인인줄 모르고 남을 대접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켈트족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 저는 음식은 먹는 장소에 두고 마시는 것은 마시는 장소에서, 음악은 듣는 장소에, 그리고 삼위일체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그는 나 자신을, 나의 소와 나의 귀여운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종달새는 그녀의 노래에 말합니다: 종종, 자주 예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에서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낯선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에 솔직함과 관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이해의 새로운 면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변환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천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감정의 업 다운으로 가득 차고, 절망과 기쁨, 광야의 시간과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정을 인도합니다. 가말리엘은, 우리는 그 현명한 사람을 사도행전 말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이 이번 성경봉독에도 또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산헤드린에게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증언한 예수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이 무엇을 아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유대인 리더들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시도해서도 안되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여기,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운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주위에서 그를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자주 알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 입니다.